

인라인 스케이트와 관련된 손상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송하헌 · 심대무 · 김동철 · 하대호 · 김태균

서 론

최근 인라인 스케이트의 인기가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사지 손상에 대해서 발생 부위 및 양상, 안전 장치의 착용에 대한 손상의 정도 차이를 조사하여 개선 방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2년 3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던 중 수상후 본원 및 타도시에 있는 2개의 부속 병원과 3개의 자매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환자 54례와 지역 인라인스케이트 동호회 회원중 설문지에 응한 40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중 남자 61명, 여자 34명 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11세 6개월(6~41세) 이었다. 내원시 이학적 검사와 단순 방사선학적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수상 부위 및 인라인 스케이트를 즐겨 타던 장소, 시간 그리고 수상 당시 보호 장비의 착용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동호회 회원들에게 같은 내용의 설문지를 배포후 질문에 응한 부상의 경험이 있었던 경우를 조사하였다.

결 과

인라인 스케이트 손상의 30(59.6%)에는 6~14세 사이의 연령에서 발생하였고, 그 이후로 사고의 발생이 점차 감소하였고, 손상의 절반인 44례(46.9%)는 오후 4시에서 8시 사이에 주로 발생하였다. 수상 당시의 장소는 71례(75.5%)에서 주로 아파트 주변의 인도나 차도에서 발생하거나, 도로변에서 발생하였다. 수상의 원인은 주행중 균형조절의 실패에 의한 것이 38례(48%), 물체에 충돌이 26례(27.6%)로 가장 많았다. 헬멧과 보호대의 보호 장구의 사용은 44례(46.9%)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헬멧을 비롯한 모든 보호장구를 사용한 경우는 25례(26.6%)이었다.

수상 형태로는 골절이 56례(59.5%), 염좌 및 인대손상이 23례(24.5%), 찰과상 또는

개방성 창상이 13례(13.8%), 탈구 1례(1.1%), 치아 손상 1례(1.1%)이었다.

골절의 부위로는 원위부 요-척골 골절 32례(34%), 주관절부 골절 13례(13.8%), 경골 골절 3례(3.2%), 상완골 간부 및 근위부 골절 2례(2.1%), 족근 관절 골절이 2례(2.1%), 대퇴골 원위부 골절 1례(1.1%), 수지 지골 골절 1례(1.1%), 두개골 골절 1례(1.1%)로 나타났다. 전체 골절 환자 56례(59.5%) 중 44례(46.9%)에 대해서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11례(11.7%)에 대해서는 도수정복 및 석고 고정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두개골 골절 1례(1.1%)는 신경외과적 치료를 하였다. 습관성 견관절 탈구에 의한 탈구 1례(1.1%)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염좌 및 인대 손상 3례(3.2%)중 만성 족근관절 불안정성으로 진단된 1례(1.1%)에 대해서 수술적 치료를 하였다

결 론

대부분 6~14세 아동들이 방과후 집주변에서 적절한 보호장구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가 부상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주로 손목 주위의 손상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라인 스케이트를 이용시 적절한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안전한 장소에서 적절한 주행 수기를 익힌 후 주행하는 것이 손상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